

문해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양 한문교육*

윤예영**

<차례>

1. 문해력과 한문교육
2. 문해력, 저하인가 격차인가?
3. 한문교육을 통한 다중 문해력 개발
4. 단일문해력에서 다중 문해력으로

<국문초록>

본고는 대학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한자 기초 문해력과 한국어 문해력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에 다중 문해력 개념을 바탕으로 초급 단계인 한자 문해력을 중급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다시 한국어 문해력으로 통합·순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교양 한문교육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한 한문 교양수업(청주교육대학교 '한자문화산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한국어로서의 한문' 교육을 설계한다.

우선 한자 쓰기와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형태 중심의 기초 한자 학습에서 시작한다. 중등 교육과정에서 한자의 의미와 관련된 부분으로만 다루었던 한자의 부수 개념을 한자의 분석과 합성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는다. 다음 단계는 마인드맵과 한국어와 한문 문법 교육을 중심으로 한 한자어 학습이다. 한자어 학습은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어휘 학습 과정에서 분석과 종합, 추론 등의 적극적인 인지 능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한자문화 읽기에서는 고사성어 다시쓰기와 신문 기사 읽기 등을 통하여 읽기·쓰기 중심의 담화 교육을 시행한다.

* 이 논문은 2022년 8월 18일에 개최된 <119차 한국고전연구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두 가지 해체 - 교양 강의실에 설치는 있는가?」의 일부를 발전시킨 논문이다.

** 청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이러한 방향은 '문해력 저하'의 문제가 실질 문해력 혹은 고급 문해력 어느 한쪽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중 문해력과 실천적 문해력을 교양 한문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양자를 매개하고, 융합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특정 학과가 주도하는 학제 중심의 교양 한문교육보다는, 문해력의 격차를 해소하고 다중 문해력 개발을 목표로 한, 읽기·쓰기 과목과 연계·통합된 교양 한문교육의 도입이 시급하다.

주제어 한문교육, 교양, 문해력, 문맹, 마인드맵, 다중 문해력, 비판적 문해력

1. 문해력과 한문교육

현재 대학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한자와 한문은 더 이상 한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놓인 고등교육 현장은 여전히 한자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해 환경이다. 이 논문은 한글전용 세대이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이와 같은 이중언어 환경 속에서 사실상 실질적 문맹 상태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자와 한문이 여전히 한국어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육 세대가 더 이상 이를 독해할 수 없다면 이것은 그들이 모국어와 그를 기반으로 한 사유체계의 상당 부분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한다.

문제는 어떤 집단이 할 수 있는 외국어가 하나 줄었다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한자와 한문이 여전히 전문 영역과 학술 영역에서 강력한 제1언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기초 한자를 몇 글자밖에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한자 문맹의 상태가 연쇄적으로 한국어 실질 문해력의 정체로 이어지고, 고급 문해력 발달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결국 한국어 능력이 세대로든 계층으로든 집단별로 분리되고, 집단 사이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려는 이미 ‘문해력 열풍’라는 사회적 담론으로 표출되고 있다.¹⁾

그러나 모두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대학 안에서 문해력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보다 높아지거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문해력 교육은 대체로 교양 교육에서 다루어지는데 대학 교양 교육의 운영 실태는 학문적 필요성이나 학습자의 요구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각 학교가 처한 물적 조건이나 제도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우선 국·공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읽기와 쓰기, 외국어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나 진로, 인성, 수리 등에 관련된, 기존의 학제를 융·복합하는 다양한 교양 과목이 운영되고 있다.²⁾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인문학·어문학 관련된 교양수업이 대폭 축소되고, 그 가운데 한문 교양수업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또한 문해력과 한자와 한문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주장이 병존한다.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한문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한자와 한문은 영어, 중국어 등 여타의 외국어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배우기에는 어려운데 쓸 일까지 적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교육 상품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한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현재 많지 않은 대학에서 한문 교양 교육이 어렵사리 운영되고 있다.³⁾

1) ‘혼숙을 “혼자 숙박”, 우천시 취소엔 “어느 도시?”’2030 문해력 저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0/09/ZM7DGRULHFHX7AP5KTZRZIYMI/, 접속일자 : 2024.10.09,

2) 이시내, 박인우, 「토픽모델링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K대학 교양교육 학습 목표 분석」, 『교육문제연구』 35(2), 교육문제연구소, 2022, 1~26쪽.

3) 송혁기,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교육에 대한 管見-대학 교양교육의 맥락에서」, 『한문교육연구』 48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17, 40~42쪽; 송호빈, 「영화를 활용한 대학 한자·한문 입문 강의의 일례: 한자(어)·한문(고전)의 존재양상과 의미 되물기」, 『어문연구』 48-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0, 271~331쪽; 송병렬, 「外國人을 위한 韓國

한문 교양 교육은 이른바 실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실질 문해력에만 관련 되는 문제도 아니며, 반대로 전공이나 계열에 따라 특화된 장르와 양식의 글쓰기를 위한 학제 중심의 교육과 고급 문해력에만 관련된 문제도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교화하기 위하여 우선 문해력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문해력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문해력은 말 그대로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뜻하며, 문맹(文盲)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문식력(文識力)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한편 오늘날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문해력 저하’를 말할 때의 문해력은 이와 다르다. OECD에서 주관하는 국제성인역량검사(PIAAC)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같은 표준검사를 통해서 측정되는 실용적 측면에서의 문해력, 즉 실질 문해력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대학 교양 교육이 목표로 하는 문해력은 어느 쪽일까? 우선 학술적, 전문적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문해력을 말한다는 점에서 기초 문해력과 구별된다. 융·복합 교양교육의 입장에서라면 학문적 역량의 기초가 되는 역량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능력까지 강조하기에, 실질 문해력과 실천적 문해력까지 포괄해야 한다.

한편 문해력의 본질을 언어와 문자의 이해와 표현의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사유의 객관화, 생산적 사유활동으로 정의하면서 문해력을 다양한

語 教育에서 漢字 語彙 教育의 問題」, 『한문교육논집』 38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2, 21~49쪽; 신상필, 「대학 교양으로서의 한문교육과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한국고전연구』 2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31~54쪽; 심호남, 「대학 교양한문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교양학연구』 제16집,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1, 7~32쪽; 이상봉, 「2022년 대학 교양한문 강의 목표와 교재 구성에 대한 일고」, 『漢文古典研究』 第44輯, 한국한문고전학회, 2022, 89~114쪽; 이승용, 「대학 교양 한문의 운영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성균관대학교 기초한문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92권, 한민족어문학회, 2021, 153~154쪽; 최윤정, 「『논어』·『맹자』를 활용한 대학 인문고전 교양교육 사례 연구」, 『동양문화연구』 22권,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4, 203쪽; 한세해, 「대학 교양교육에서 한문 교과목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자한문교육』 46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9, 169~172쪽; 홍진옥, 「대학 교양 한자(어) 교과목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한국학논집』 92집, 2023, 249~281쪽.

유형의 매체를 사용하여 이루어내는 기술 활용 능력으로 폭넓게 정의하는 관점도 있다.⁴⁾ 이를 다중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다중’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종종 새로운 미디어를 ‘많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중’의 핵심은 문해의 대상을 문자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세계’로 확장된다는 데 있다. 그러니 전통적인 문해 중심의 교육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를 빨리 습득하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넘치는 정보와 다양한 매체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조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요컨대 다중 문해력은 전통적 문해력을 매개로, 학교 안팎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문해력을 매개하고 번역할 수 있는 상위 언어로 활용하는 능력이라 재정의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련되기 때문에 실천적 문해력⁵⁾과도 통한다. 따라서 다중 문해력은 기초 문해력에서 고급 문해력으로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문해력인 동시에, 실천적 문해력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결국 모든 문해력은 다중 문해력의 한 양태라고 볼 수도 있다.

오늘날의 교육 세대가 실질적으로 이중언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중언어 체계이나, 단일언어 체계이나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이다. 서로 다른 언어가 만나면 조정(accommodation)이 일어나는데, 수렴(convergence)과 분기(divergence)가 그 두 가지 형식이다. 언뜻 생각하면 수렴은 단일언어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고, 분기는 이중언어를 지향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렴은 다른 언어를 만났을 때 그 언어를 모방하고, 최대한 그에 가깝게 자신의 언어를 조절하는 것이다. 분기는 최대한 차이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이

4) 김종규·원만희, 「미래 대학 교양교육의 핵심 영역으로서 ‘다중 문해력(Multi-Literacy)’, 『동서철학연구』 제104호, 한국동서철학회, 2022, 321쪽.

5) 힐러리 쟁크스, 장은영 외, 「리터러시와 권력」,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306~307쪽.

다.⁶⁾ 따라서 두 개의 언어가 배타적으로 분리되고 코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어의 계층화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이다. 이제 어떤 종류의 글은 전혀 읽을 수 없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본고는 다중 문해력의 개념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한 한문 교양수업(청주교육대학교 ‘한자문화산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문해력 격차의 해소를 목표로 한 대학 교양 한문 수업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교양 한문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의 문해력 상태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읽기·쓰기 과목과 연계한 한문 교양 교육, 한문학이나 한문교육, 국문학과 국어교육, 중어중문학 등 특정 분과 학문 중심의 한문 교양 교육에서 벗어나 한자 문해력과 한국어 문해력을 융합하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그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에 대한 공유이다.

2. 문해력, 저하인가 격차인가?

먼저 현재 대학 교양수업 학습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자 문해력과 한국어 문해력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⁷⁾ 한자 문해력은 실질적 문맹 상태나 다름없다. 한편 한국어 문해력은 성인 실질 문해력의 평균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자 문맹의 상태가 한국어 문해력에도 실제로 영

6) 로버트 레인 그린, 김한영 역, 『모든 언어를 꽃피게 하라』, 모멘트, 2013, 166~180쪽.

7) 한국고전연구학회 119차 학술대회(2022년 8월 18일)의 기획주제 ‘디지털 세대를 위한 고전문학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위해 발표한 「두 가지 해체 - 교양 강의실에 설화는 있는가?」의 3장 3절에서 한문 교양수업 수강생들의 한자 문해력과 한국어 문해력의 분리 현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으나, 발표문의 완성본인 「대학 교양 글쓰기와 문해력」에서 논의를 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문 교양 수업에 관한 짚을 삭제했다. 그 후 수업을 통해 한자 문해력과 한국어 문해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보았고, 이 논문을 통해 그간의 시도를 정리하고자 한다.

향을 미칠까? 대학생들의 한자 문맹 상태가 한국어 문해력 전반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국어에 한자어의 비중이 높고, 한자어를 구성하는 한자를 잘 모르면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가설을 넘어서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학습자의 문해력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의 학교 교육에서 말하는 한자는 한반도에서 근대 이전에 사용된 중국 문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한국어 표기를 대신했던 외래문자이며,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근대의 국한문 혼용 시기까지 한글과 함께 한국어 표기를 이중으로 담당해온 문자이다.⁸⁾ 그러나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문서에서 한글전용 표기를 전격 시행한 이래 사실상 본격적인 한글 전용의 시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⁹⁾ 초·중등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고시하에 12년의 동안 기초 한자 1800자를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한문 교과서를 제외한 교재에서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학습자 세대가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에 노출될 기회는 교과서 이외에는 거의 없다.¹⁰⁾

따라서 현재 대학 한문 교양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한자는 초등·중학교에서 필수교과로 지정된 영어보다 더 낮은 언어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8) 류준경, 「한문과 및 국어과 교육과정 변천의 의미와 상호 소통 및 유대의 모색」, 『한문교육논집』 49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7, 61~96쪽.

송병렬, 「한국의 한문문화와 한문교육」, 『동방한문학』 33권, 동방한문학회, 55~78쪽.

유명인, 「한문 교육 진흥을 위한 독일의 라틴어와 한문 교육 사례 검토」, 『동방한문학』 33권, 동방한문학회, 77~102쪽.

이강욱, 「이중언어 현상과 고전문학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에 대한 연구」, 『어문학』 106호, 한국어문학회, 2009, 57~97쪽.

9) 김영옥, 「어문 정책에 따른 漢字教育 정책 변천 과정 연구」, 『동아한학연구』 18, 고려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2024, 139~168쪽.

10)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https://www.law.go.kr/법령/국어기본법>, 접속일자: 2024.11.17.

의 경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 함께 실시되며, 학생들은 독일어, 프랑스어 등의 제2외국어, 그리고 한문 가운데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본다. 교육과정에서도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교양’과 함께 묶여 있는 일반선택 과목이다. 학생들은 이 가운데서 전체 16학점 이상을 필수로 선택하여 들어야 한다. 이처럼 교육과정상 한문은 국어가 아니라 제2외국어와 함께 편성되어 있다.¹¹⁾ 물론 중학교에서 한문을 공통 교육과정에 포함하지만, 고등학교에서 한문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배운 한문이 전부가 된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듯, 교양 한문 수업의 첫 시간에 학생들의 기초 한자 문해력을 점검하면 30~40자 정도 읽을 수 있고, 쓰기는 사교육으로 선행학습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10자 정도 쓸 줄 안다. 그나마 한자능력시험 8급(50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급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용 한자 1800자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보행’, ‘산보’, ‘수면’, ‘숙면’ 등 현대 한국어에서도 일상적으로 쓰이는 중학교 수준의 한자 ‘步’와 ‘眠’을 읽거나 뜻을 짐작하지는 못하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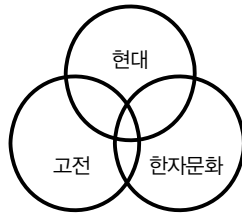
교육용 한자보다 쉬운 한자능력시험을 기준으로 최대 5,6급 350~500자를 익히는 것을 한 학기의 목표로 제시하지만, 학생들은 ‘한자를 익힐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결국 대학에 들어올 때 20~30자의 한자를 아는 수준에서 시작해서, 한 학기 동안의 교양수업을 들어도 중학교 수준의 한자 900자도 미처 다 습득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문해력 저하’와 실질적 한자 문맹의 상태는 중등 교육과정¹²⁾이 제시하

11) 정하정,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교육과 기본이수과목의 운영 방향-한문학사에 관하여」, 『한문교육논집』 61, 한국한문교육학회, 2023, 111~135쪽.

12) 2015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육 영역이 한자와 어휘, 한문의 독해,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 등 5개 영역이었다면, 2022 교육과정은 한자와 어휘, 문장 2개의 내용 영역으로 단순화되었다.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boardSeq=>

는 한문교육의 목표,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한 내용,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울 것으로 기대하는 교양 한문의 목표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중등 한문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교육 영역은 현대 한국어로서의 한문, 고전 한국어로서의 한문, 한자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로서의 한문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만일 이를 아래와 같이 세 개의 큰 원으로 표시한다면 이 세 원은 시대에 따라서 근접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면서 교집합과 여집합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림 1> 중등 한문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한문교육의 영역

이 세 개의 원은 시대에 따라서 확장하기도 하고 축소하기 때문에 각 세대가 통과해온 영역이 다르며, 현재 서로 서 있는 영역도 다르다. 따라서 ‘문해력 저하’의 문제는 소통 불가의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소통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통시성과 공시성을 평면에 펼쳐놓은 지도 위에 교수자와 학습자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다른 영역에서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학교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한자와 한문은 이 세 영역의 공통의 교집합이다. 중등 교육과정은 ‘현대 한국어’와 ‘현대 한자문화권’을 주요 학습 영역으로 제시하며, 이 두 영역은 최종적으로 ‘한문 고전 해석’이라는 목표에 이르기 위한 전 단계이자, 일종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학교에서 선정

한 교육용 한자 1800자에서 말하는 기초의 수준은 한문 고전 해석을 위한 기초이다. 한편 교수자 세대에게 한자는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는 고전어나 외국어가 아니었다. 엄연히 한국어의 일부였고, 학교 밖 일상의 영역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었다.

반면 현재의 학습자 세대에게 한자와 한문은 가장 축소된 영역에 속한다. 오로지 학교 교육의 대상으로만 존재한다. 교과과정에서 ‘기초’가 정작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기초가 아니다. 이는 학생들의 현실적인 수준과 학습 목표 사이에 큰 격차가 있으며, 교육 세대 사이에 한자 기초 문해력의 격차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밖에 배우지 않은 외국어가 기초의 수준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은 대부분은 오늘날 한자보다 더 널리 쓰이는 스페인어보다는 한자를 훨씬 잘 알 것이다. 문제는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관계보다 한국어와 한자의 관계가 더 가깝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한자 문맹의 영향은 단순히 외국어로서의 한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한글 전용 세대는 한국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거나 눈으로 읽을 수 있지만, 한자어의 빈도와 비중이 높아질수록, 어휘의 의미를 문장과 담화의 맥락에 의존해서 짐작해서 읽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진다.¹³⁾ 따라서 이들이 접하는 글이 대부분 한글로만 되어 있더라도, 한자어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읽는 속도, 이해하는 속도, 학습 동기는 떨어진다. 문제는 대학 교재는 물론이고, 대학 졸업 후 이들이 사회에서 접하는 공식 문서는 한자어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점이다. 한자어의 빈도가 낮은 텍스트를 선택할 수도 없다. 표기만 한글 전용일 뿐, 담화의 장르에 따라서 한자어 빈도는 아주 낮거나 아니면 반대로 조사나 접미사를 제외한 8,90% 이상의 단어가 한자

13) 한영균, 「현대 한국어의 한자·한자어의 빈도 및 분포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그 활용」, 『언어와 문화』 1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7, 167~194쪽.

어인 문서로 양극화된다. 즉 한자어 사용 빈도와 비율의 차이는 담화 장르에 의해 결정되며, 그 차이는 점층적,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극성 대립으로 나타난다.

결국 한자 문맹의 상태가 특정한 종류의 한글 문서를 전혀 읽을 수 없는 한글 문맹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한자어가 많이 쓰인 한글 문서의 가독성은 영문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지만 해석을 하지 못하는 상태와 큰 차이가 없다. 어쩌면 이들이 영어 어휘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고급 수준의 영문 텍스트를 읽는 것이 한국에서 90년대에 출판된 학술 논문을 읽는 것보다 쉬울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상은 1주차에 실시한 간단한 테스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아래는 교육방송이 성인들의 실질 문해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만든 조사 자료의 일부이다.¹⁴⁾

1. 다음은 어느 투자증권 회사의 국내 주식 수수료 및 세금에 관한 안내문 중 일부이다. 안내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주식을 매매할 시 '유관기관 수수료'가 발생하며, 본 기관에서는 0.3%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 나. 증권거래법 상 유가증권(주식과 채권)을 매도할 때에는 매도인에게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다. 코스닥을 기준으로 주식 매매 거래 당 0.2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매도 체결분부터 제도 변경시까지)

본 기관은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고지된 설명을 충분히 읽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4) 2022년 7월 7일에 방영된 EBS의 <당신의 문해력+> 1화 제작을 위한 사전 조사 자료의 9번 문항, <https://literacy.ebs.co.kr/yourliteracy/literacyPoll/plus>, 접속일자: 2024.11.17.

한방만 대리가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 코스닥에 상장한 E기업 주식 990만 원어치를 매수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다행히 그 사이 주가가 올라 1,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한방만 대리가 주식 1,000만 원어치를 매도했을 때, 과연 얼마의 수익을 얻게 됐을까?

1) 본전 2) 손해 3) 4만 원 이상 수익 발생 4) 2만 원 이하 수익 발생.

위의 문제는 어휘력, 수리계산 능력, 지문 분석·종합·추론 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이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수료를 계산하여 손익을 예측하는 내용의 문제로,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관한 것이면서, 졸업 후 경제 활동과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성인보다는 이런 형식의 문제에 익숙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방송 출연자들과 비교하여 정답률이 높지 않았다(25명 기준 정답자가 4~5명 수준).

특히 ‘매매’, ‘매수’, ‘매도’ 등의 한자어의 뜻을 알아야만 문제 해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매매’의 뜻은 알지만, ‘매수’와 ‘매도’의 뜻을 구별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보다 충격적인 것은 한자어의 빈도가 높아서 읽기 전부터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며 읽기 꺼려진다는 학생들의 말이었다. 그래서 만일 시험이 아니었다면 이처럼 한자어가 많이 쓰인 계약서, 약관, 설명서 등은 주의 깊게 읽지 않았을 것이며, 읽었다 해도 다른 사람이 설명해주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최소한 매매, 매수, 매도의 어휘의 뜻을 암기하지는 않더라도, 이 글 전체를 읽는 데 반드시 의미를 확인해야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는 구별하고, 어떻게 구별하고 확인할지(의미를 찾아보는 것에서부터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에게 요청하거나 시간을 갖는 등) 전략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위의 문제가 실질 문해력과 실천적 문해력에 관련된다면, 다음은 좀 더 전통적인 한자 문해력에 관련되며, 고급 단계의 지문 독해에 필요한 문해

력이다. 문맥을 통해서 한자어의 음을 어느 정도로 짐작해서 읽을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문제로서, 동음이의어를 구성하는 각 한자의 음과 뜻을 제시한 뒤, 문맥에 맞는 한자어를 고르게 했다.

문제) 다음의 한자를 이용하여 밑줄 그은 단어를 한자로 쓰시오.

公 공평할 (공) 空 빌 (공) 功 공로 (공) 利 이로우 (리) 理 이치 (리)

- 1) 공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리와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 2) 수학은 공리를 가정하여 올바른 결론을 끌어내는 과학의 한 분야이다.
- 3) 총선주자들의 선거정책은 공리공론을 못 벗어났다.
- 4) 공리주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윤리적 사상이다.

중급 이상의 한자를 모양, 음, 뜻을 모두 제시한 뒤에 각각의 한자로 한자어를 합성어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이다. ‘공리’를 한글로만 썼을 때는 앞뒤의 문맥으로 추론하지 않는 이상, ‘일반 사람과 사회에서 두루 통하는 진리’로서의 공리인지, ‘공명과 이익’으로서의 공리인지, ‘공공 단체의 이익’의 공리인지 구별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공’의 동음이의자, ‘리’의 동음이의자를 알고 있다면 보다 정확한 의미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이 한자어를 어느 정도로 한자어로 인식하는지, 한자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음절이 개별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

이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수업이 진행되는 내내 학생들이 한자어와 고유어를 거의 구별하지 못했다.¹⁵⁾ 교수자 세대에게 한글로 쓰인 한자어는 의

15) 동음이의어 문제로 ‘경기’라는 동음이의어를 용례를 통해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도 출제했다. ‘경기’에 사용된 한자들이 모두 고급 수준의 한자이므로 읽기 어렵지만,

미가 확정되지 않은 단어이며, 각 음절이 어느 한자에서 왔는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 한자어를 구성하는 각 음절을 의미를 지닌 형태소로 인식한다면, 한자어는 단어 안에 이미 뜻풀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자 문맹인 학생들에게 개별 음절은 의미가 있는 형태소가 아니라, 순수한 발음기호에 불과하다. 요즘 세대의 ‘문해력 저하’를 꼬집는 뉴스가 공통으로 언급하는 사례는 대부분 발음의 유사성(‘금일’과 ‘금요일’)에 관련된다. 즉 사실상 표의문자인 한자어를 표음문자처럼 이해하는 것이다.

요컨대 학생들의 문해력이 한자와 한문은 초급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어 문해력의 수준은 실질 문해력의 단계, 즉 중급 단계에 있다. 현재 대학 교양수업 수강생들의 한자 문해력은 한국어 중·고급 문해력에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된 상태이며, 사실상 외국어 초급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한국어 내에서 한자와 한문이 차지하는 사회언어학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한자 문해력과 한국어 문해력의 이러한 격차가 한국어 문해력이 전문적·학술적 영역으로 신장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문교육을 통한 다중 문해력 개발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자 기초 문해력과 한국어 문해력의 격차를 좁히고, 더 나아가 한자·한문교육을 통해 한국어 실질 문해력과 한국어 고급 문해력 향상을 목표로 매학기 한문 교양수업의 방향을 수정해 왔다.

용례가 나오기 때문에 공통적인 의미 맥락을 통해서 대체로 ‘경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만일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음이의어라는 힌트를 준다. / 문제) 다음 한자어의 음을 읽고, 단어의 뜻을 풀이하시오. 1) 景氣가 회복되어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2) 競技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선전을 다짐했다. 3) 아기가 驚氣를 일으키며 울었다. 4) 수도권은 서울, 인천, 京畿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한 학기 동안의 커리큘럼은 기초 한자 학습, 한자어 학습, 담화 학습이라는 크게 세 영역에서 진행되며, 각각 50분 수업으로 3시간 강의로 이루어진다. 이 세 영역은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되기보다는 1·2·3차시가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한다. 즉 첫 시간에 다룬 한자가 두 번째 시간의 어휘 학습에서 나오고, 두 번째 시간의 어휘 학습을 바탕으로 세 번째 시간의 읽기와 쓰기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즉 한 주치의 수업에서 한자와 단어, 문장과 글 읽기를 통합, 연계되도록 했다. 단,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자를 처음 공부하는 단계임을 고려하여 중간고사 이전에는 기초 한자와 한자어 학습의 비중을 높이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한국어 담화 읽기와 쓰기 수업의 비중을 높여갔다.

앞서 다중 문해력을 ‘기초 문해력에서 고급 문해력으로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문해력인 동시에, 실천적 문해력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 장에서는 한문교육을 통해서 문식력에서 실질 문해력으로, 실질 문해력에서 실천적 문해력으로 문해력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양태를 살펴보고, 문해력의 각 단계의 양태들이 서로 매끄럽게 전환되고, 학생들이 언제든 지 꺼내어 쓸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될 수 있게 만들 방법을 모색한다.

1) 분석과 합성 중심의 기초 한자 교육 - 한자 쓰기와 마인드맵

대학 교양수업 수강생들의 한자 문해력이 한자 문맹 상태라고 가정할 때, 기초 학습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기초인가?¹⁶⁾ 또한 그 기초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문맹 상태의 학습자에게 기초는 우선 글자를 글자로 인식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한자를 한자로 인식

16) 김성중,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필요한 자수와 자종 선정에 대한 연구」, 『漢字漢文教育』 48집, 2020, 133~150쪽; 김은미, 「한자 급수 시험의 현황과 문제점」, 『한문교육논집』 25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549~587쪽; 文英喜, 文準慧, 朴智英, 「한자능력 시험 선정 한자 고찰」, 『중국어문학지』 68권, 중국어문학회, 2019, 157~177쪽.

하기 위한 인지적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한자의 제자 원리를 학습자의 관점에서 단순화한 ‘분석과 합성’의 원리이다. 이때 부수자는 한자의 분석과 합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분석과 합성의 원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초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한자 쓰기이다. 그리고 한자를 기본적으로 식별하고 이해하는 중급 수준이 되었을 때 한자 마인드맵 쓰기를 시도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한자 쓰기가 정말로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한자 쓰기를 과제로 부여하는 학기와 그렇지 않은 학기의 강의평가의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학생들은 한자 쓰기를 부담스러워한다. 국한문을 혼용하고, 한자를 병기하던 세대 중에도 한자를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영어를 유창하게 읽고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철자를 정확히 쓰는 것은 별개이다. 그런데도 한자를 굳이 쓰면서 공부해야 할까?

만일 학생들의 한문 수준이 영어 수준만 되더라도 굳이 쓰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혹은 이전의 교육 세대처럼 한자를 쓸 줄은 몰라도 읽고 한자를 읽을 수 있고, 한자어의 뜻을 짐작해볼 수 있는 수준만 되어도 그렇다. 문제는 현재 학생들은 한문은커녕 한자를 식별조차 하지 못하는 초급 이전의 단계, 실질적 한자 문맹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한자 쓰기를 매 학기 강권하게 되는 까닭은 학생들의 한자 문해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적 평가에 기반한다.

예를 들어 초급 학습자는 아직 글자를 분류하거나 변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校’가 하나의 글자인지 두 개의 글자인지, ‘木’과 ‘禾’, ‘才’가 같은 글자인지 다른 글자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또한 획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東’보다 ‘校’가 훨씬 어렵고 복잡한 글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사정이 이러니 한자를 인식하는 기본 단위를 자획(字畫)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획수가 많아질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라고 겁을 먹는다. ‘東’을 ‘木’과 ‘日’로, ‘校’를 ‘木’과 ‘交’로 쪼개서 보는 것도 쉽지 않다. 달리 문맹이

아니라, 글자를 글자로 인식하지 못하기에 문맹이다.

특히나 현재의 한국어 환경은 한자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읽을 필요조차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 말은 반대로 현재의 교육 세대가 이전 세대처럼 한자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자라는 새롭고 낯선 문자 체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쓰기라는 집중적이고도 고통스러운 단계를 통과해야만 한다. 필사는 단순노동이 아니라, 글자의 제자 원리를 학습하고 원리를 내면화하는 분석의 과정이다.¹⁷⁾ 복잡한 한자를 그림이 아니라 문자 기호로 인식하고, 글자와 글자 미만을 구별하기 위한 연습법이다. 특히 한자는 말하기나 듣기를 통해서도 익히기 어렵다. 오히려 쓰는 과정을 통해 시각적으로 분절하며 형태를 익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자 문맹 세대에게 기초는 기초 한자를 통째로 암기하기 이전에, 글자와 글자가 아닌 것, 하나의 글자와 다른 글자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자의 제자 원리(육서)를 글자의 유형론으로 가르치기보다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글자를 식별, 인식, 이해하는 원리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한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글자와 쪼갤 수 있는 글자, 즉 ‘분석과 합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부수를 ‘뜻으로 분류된 한자 무리에서 그 뜻을 대표하는 글자로,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필요한 기본 글자’, ‘대부분 한자의 뜻과 관련이 있어서 부수의 뜻을 알면 한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¹⁸⁾라고 가르쳐왔다. 즉 모르는 한자의 음과 뜻을 자전에서 찾을 때 부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자전 편찬자나 한자를 어느 정도 ‘아는’ 교수자의 입장에나 통하는 말이다. 본자(本字)를 모르는 사람이 부수를 알 수는 없다.

17) 나오미 배런, 전병근 역,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크로스, 2023, 128~129쪽.

18) 송재소, 배기표, 김호기, 변유경, 안병후, 김충겸, 이미영, 『중학교 한문』, 다락원, 2018, 22쪽.

어쩌다 부수를 알았다 하더라도 부수로 의미를 짐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부수는 그 어휘의 구체적인 의미이기보다는 부류소(classeme)이기 때문이다. ‘東’의 부수가 ‘木’이라는 사실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의미는 나무와 관련될 것이라는 정도로 막연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東’을 구성하는 ‘木’과 ‘日’ 중에서 왜 하필 ‘日’이 아니라 ‘木’이 ‘東’의 부수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혼란만 가중된다. 결국 부수로 한자를 자전에서 찾아보거나 의미를 짐작하려면 한문 실력이 어느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초급 학습자에게 부수는 한자의 의미에 관련시키기보다는 한자의 형태를 인식하는 원리인 분석과 합성의 원리의 기본 단위이자 최소 형태로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¹⁹⁾ 그렇다면 상형자나 100여 자의 기본 부수처럼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 한자는 어떻게 학습해야 할까? 특히 7, 8급의 상형자(月 火 水 등)를 포함한 부수자는 갑골문이나 그림 문자 등을 자료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분절하기 어렵고 더 구상적이다.²⁰⁾ 결국 초급 학습자의 입장에서 한자 쓰기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상형자가 많이 포함된 7,8급 기초 한자뿐만 아니라 기본 부수 214자 중에서 기초, 상용 한자에 많이 쓰이는 100여 자의 부수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자를 글자로 식별하기 위해서, 한자 문맹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외울 정도는 못되더라도 한 번 이상씩은 모두 써볼 필요가 있다. 물론 초급 단계일수록 교수자가 먼저 판서를 통해 제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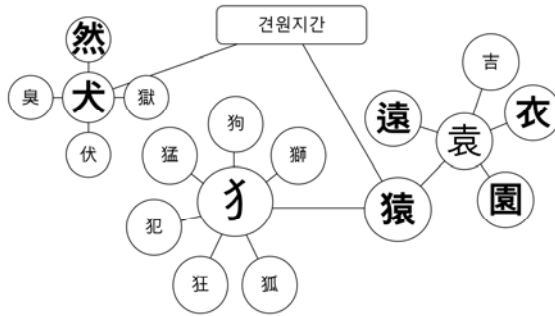
부수자로 대표되는 기본 형태를 교수자의 제시와 학습자의 쓰기 연습으로 익힌 후에, 이 기본 형태가 합성되어 하나의 새로운 글자가 이루어지는

19) NAVER 인터넷 한자사전에는 음, 총획수, 부수 이외에도 ‘모양자’로 한자를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말 그대로 부수자가 부수가 아니라, 단순히 형태만으로 사용된 경우를 가리킨다.

20) 전광진, 「초기한자에 보이는 그림문자의 특성과 그 변용」, 『중어중문학』 56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13, 525~567쪽.

과정, 즉 형성, 회의 등의 원리로 이루어진 중급 한자로 이행이 가능한데, 형성, 회의의 원리로 이루어진 합성자의 경우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한자의 분석과 합성의 원리를 연습하면 좋다.²¹⁾ 부수에서 출발하여, 부수가 아닌 부분을 고리로 삼아, 한 글자에서 출발하여 때로는 같은 음을 가진 글자로, 때로는 동일한 계열의 의미를 지니는 글자로 중첩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매시간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수를 선별해서, 5~8급 한자를 분석하고, 4급 이상의 중고급 한자의 음과 뜻을 유추하는 마인드맵 쓰기 활동을 한다. 부수자를 양적으로 많이 다루기보다 부수자가 한자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나머지 부분은 어떤 글자인지 분석과 합성의 원리를 강조하는 게 포인트이다.



<그림 2> 犾과 犬을 이용한 한자 마인드맵

주의할 점은 마인드맵 쓰기는 학생들이 한자의 제자 원리를 어느 정도 숙달한 뒤에야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초 단계에서 시도

21) 마인드맵은 자유 연상(환유적 관계)과 인지작용의 위계적 구조(은유적 관계) 동시에 반영하는 필기의 방법이다. 중등 교과서에서도 마인드맵이 소개되지만, 한자의 제자 원리에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김은경, 『창의적 공학설계』, 한빛아카데미, 2020, 133~144쪽.

할 경우,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되기 쉬우며, 한 글자로부터 최소 10~20자 이상의 한자가 파생되기 때문에, 이 경우 학습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한자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학습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따라서 초급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정보량을 조절하며, 차츰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추론 중심의 한자 어휘 교육 - 마인드맵과 문법 교육

성인 문해력의 실태를 꼬집는 사회 담론은 한자를 배우면 어휘력이 좋아지고, 어휘력이 문해력의 핵심으로 흔히 진단한다. 그렇다면 정말 ‘학교’라는 단어가 한자어인지 아닌지, ‘배울 학’, ‘학교 교’에서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한국어 문해력의 핵심일까? 물론 대학에서 교양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가 한자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도 ‘공부하는 곳’, ‘배우는 곳’, ‘가르치는 곳’이라고 곧잘 풀이할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것은 ‘학’과 ‘교’를 각각 의미를 분석한 결과도 아니다. ‘학교’를 읽고, 이 단어가 지시하는 경험적 대상을 연상하는 과정은 매우 자동화된 사고 과정이다. 따라서 만일 일상어를 각각 한자 형태소²²⁾로 분절해서 번역하듯 뜻을 풀이하면 오히려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학교’처럼 일상 담화에서 사용하는 초급 수준의 어휘가 아니라, 중급 이상의 한국어 담화를 읽고 쓸 때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한국어는 담화 장르에 따라서 한자어의 비중이 달라진다. 사회적, 전문적, 학술적 목적의 담화에서 표기는 한글로 했다 하더라도, 조사나 어미를 제외한 대부분이 한자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비중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어휘의 난이도, 어휘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의 수준도 높아진다. 신문 기사만

22) 송병렬, 「外國人을 위한 韓國語 教育에서 漢字 語彙 教育의 問題」, 『한문교육논집』 38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2, 21~49쪽.

해도 경제나 정치 등의 분야가 아니더라도, 대체로 최소 4급 이상의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가 사용된다. 따라서 한문 교과 과정에서는 점점 축소되는 한자어 교육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학생들은 고유어와 한자어를 구별하지 않고, 한글로 표기된 낱말의 의미를 그 소리가 지시하는 특정한 대상을 연상하는 방식으로 한자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한글은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한자어 역시 한글로 표기된 이상 이를 발음기호로 읽는 것은 당연하다.²³⁾ 그러나 한자어를 한자어로 읽으면,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이미 그 단어 속에 이미 풀이되어 있는 뜻을 단서로 얻게 된다.

어휘 학습은 오히려 친숙한 일상어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등산’, ‘登山’, ‘산을 올라가다’, ‘산에 올라가다’. 그렇다면 ‘올라가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무엇이 있을까? ‘등산’, ‘등교’, ‘등원’처럼 학교, 학원과 같은 학습자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상이 올 수도 있다. 혹은 ‘등록’과 ‘등기’처럼 기록이나 문서처럼 산보다 추상적인 대상에도 쓸 수 있다. 더 나아가 ‘龍門’과 같이 아예 상상의 대상에도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확장하면 구체적인 일상어에서, 추상적인 개념어, 더 나아가 ‘등용문’이라는 성어를 통해 담화단위의 고사(古事)로도 무궁무진하게 확장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이라는 한자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언어의 더 미세한 단위로 확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볼 수도 있다.

한편 ‘올라가다’의 반대말인 ‘내려가다’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볼 수 있다. ‘하교’, ‘하원’은 ‘등교’와 ‘등원’의 반의어가 될 수 있지만, ‘하록’, ‘하기’는 ‘등록’과 ‘등기’의 반의어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등록’과 ‘등기’의 반의어가 무엇인지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등산’에서 ‘등기’로, ‘등기’에서 ‘등기’

23) 이유리, 최소영, 「초등학교 고학년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문장 맥락을 활용한 한자 합성어 이해 특성」, 『특수교육논총』 38-4,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22, 99~115쪽.

한편 더욱 효과적인 한자어 학습을 위해서는 문법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자어는 한국어에서는 단어이지만 한문에서는 이미 문장이다. 한자어는 한국어 문장 내에서는 한국어 문법의 지배를 받지만, 한자어 자체는 한문 문법에 따라서 해석된다. 따라서 한문 문법 학습이 병행되지 않으면, 한자어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의 음과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한자어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자어의 단어의 구성에서 병렬 구조(예. 貧富, 春秋), 수식 구조(高山, 四季), 주술 구조(日沒, 夏至)처럼 한국어와 한문의 문장 순서가 일치하는 경우는 개별 한자를 이는 것만으로 한국어 문장 순서에 따라서 단어를 해석하면 단어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不滿’, ‘不便’ 등의 한자어는 ‘만족하지 않다’, ‘편하지 않다’처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니 만족스러운’, ‘아니 편안한’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아니(불)’, ‘만족할(만)’ 등으로 각각의 음과 뜻을 알더라도 한문은 한국어와 달리 ‘아니다(不)’라는 서술어 뒤에 ‘만족스럽다’, ‘편안하다’가 보어로 올 수 있다는 문법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처럼 ‘불만’과 ‘불편’ 등의 한자어를 한자어로 인식한다는 것은, 국어 문법과 한문 문법²⁵⁾의 차이를 인식하고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할 줄 아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中等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어순과 일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만 나누어서 가르치던 내용²⁶⁾을 대학 교양수업에서 심화하여 한국어와 한문의 통사론적 구조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中等 교과 과정에서 ‘단어의 짜임’과 ‘문장의 짜임’을 분리해서 한국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자어를 먼저 가르치고, 한문 문장을 나중에 가르친다. 그러나 대학생은 한자어와 한문 문장이 별개의 통사 단위인 것

25) 노명희, 「한자어 문법 단위와 한자어 교육」,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2006, 466~470쪽.

26) 中等 교육과정에서는 ‘순서대는 푸는 어휘’와 ‘거꾸로 푸는 어휘’로 소개하고 있다.

처럼 제시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자어가 한국어에서는 단어이지만, 한문에서는 이미 문장의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문법을 중복해서 제시할 필요가 없다. 즉, 대조언어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국어 문법이 한문 학습에, 한문 문법이 국어 학습에 상호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⁷⁾

어휘 학습은 분석과 종합, 추론 등의 적극적인 인지적 활동의 결과이며, 이를 촉진한다. 따라서 단순히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알거나, 많이 아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새로운 언어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과정이 학습자에게 주는 가치를 탐색하게 해야 한다. 정보를 축적하는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지식의 창조자가 되도록 말이다.

3) 다시읽기·다시쓰기 중심의 담화 교육 - 고사성어와 신문 기사 읽기

언어는 특정한 문화적 맥락과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이를 만들고 구성하는 담화적 수행이다. 언어 교육에서 문화를 별도의 항목으로 교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2차시가 한자와 한자어를 익히는 문해 중심의 수업이었다면, 3차시에는 이를 바탕으로 문해력을 담화 이상의 범위로 확장하고 응용하는 수업을 한다. 즉 읽고 쓰기의 대상을 ‘文’에서 삶으로 확장하는 실천적 문해력의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27)

국어 문법	예시	한문 문법
대등 합성어	빈부 부귀	병렬
수식 합성어	귀금속	수식
융합 합성어	광음 계류	병렬
통사적 합성어	귀금속	수식
	하지	주술
비통사적 합성어	독서	술목
	등교	술보

이를 위해 인문 교양의 텍스트를 선정하여 텍스트를 읽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자기 생각을 써보는 활동이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²⁸⁾ 고사성어나 고전 텍스트는 한자와 한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상이다. 그러나 어려운 말이나, 더 이상 쓰지 않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지 한자나 한문에 대한 기본 독해가 불가능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한자나 한자어 학습에서처럼, 사자성어나 고전 텍스트에도 고정된 해석적 의미가 따로 있기에 사전이나 권위 있는 해석에 의지해야만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전 텍스트를 단순히 한문의 1, 2차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화, 문화,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하고 나의 것으로 다시 쓸 수 있다면, 고전 텍스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실천적 문해력을 개발할 수 있다.

고사성어는 실천적 문해력 훈련을 하기에 매우 좋은 텍스트이다. 논어 같은 경전의 구절은 한문 중에서는 길이가 짧아서 1·2차시의 문해 중심의 해석 수업에는 적합했던 반면, 이를 재해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읽기·쓰기 수업의 텍스트로 삼기에는 교양 수업 수강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편이다.²⁹⁾ 반면 고사성어는 대부분 네 글자로 이루어져서 해석 연습의 예문

28) 최윤정, 「『논어』·『맹자』를 활용한 대학 인문고전 교양교육 사례 연구」, 『동양문화연구』 22권,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4, 203쪽.

29) 예를 들어 『논어』의 경우 최대한 쉽게 풀이된 현대역을 제공하되, 한문학 기반의 풀이를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와 역주도 추가로 제공한다. 텍스트를 선별할 때도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주제로 접근한다. 학과의 특성에 맞추어 공자와 제자들의 상호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구절을 선택하거나, ‘학습’과 ‘교육’에 관련된 주제를 담은 구절을 뽑는다. 그리고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 예를 들어 ‘논어에서 제자들을 교육하는 공자의 다양한 모습을 읽고, 이 중에서 나에게 가장 와닿은 구절을 고르고, 논어가 추천하는 공부법에 대해서 1000자 내외로 써보자를 주고, 현재 나의 관점에서 다시 쓰기를 하는 활동을 한다.

사쿠 야스시, 장원철·김홍규 역, 『고등학생이 감동한 논어』, 김영사, 2008.

논어, 사이버서원, https://hm.cyberseodang.or.kr/verbalTrans/classic_list1.asp

으로 활용하기에 쉬운 동시에, 성어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나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어서 비교적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속뜻을 해석하고 맥락적 의미로 확장하는 고급 문해력 훈련에 좋다. 즉, 언어의 지시적 의미로서의 1차적 의미 파악, 함축적·관습적 의미로서의 2차적 의미 해석, 이를 현실에 적용하고 자기화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비판적 문해력까지 겹겹의 의미를 단계적으로 읽고, 쓰고, 다시 쓰기에 매우 좋은 문화 텍스트이다.

고사성어를 이용한 수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2차시에 우선 한자와 한자어, 한문 문법 학습의 예문으로 성어를 활용하여 해석 연습을 한다. 3차시에는 성어의 함축적 의미와 화용론적 의미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즉 성어의 관습적 의미와 유래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어 담화에서 어떤 식으로 인용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고사성어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고, 자신의 상황이나 오늘날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어 만드는 과정에서 문해 중심의 한문교육은 실천적 문해력으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 1차시에 扌, 手 부수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投를 비롯한 扌 부수를 포함하는 한자를 학습하고, 投를 포함하는 한자어(투기, 투수, 투자, 이란투석)를 학습한다. 2차시에는 1차시의 한자 학습을 바탕으로 以卵投石, 以卵擊石을 직역하고, 어조사 以의 문법 학습을 한다. 여기까지 한자와 한자어를 대상으로 한 문해 중심의 한문 수업이다.

한편 3차시에는 以卵投石, 以卵擊石의 유래인 『목자』의 「귀의편」의 현대역을 텍스트로 제공하여³⁰⁾, 성어의 함축적 의미와 관습적 의미를 확인한다. 교수가 원전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로 풀어주어 담화적 문맥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때 이란투석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계란으로 바위치

30) 신동준, 『목자』, 학오재, 2015, 786~787쪽.

기, ‘맨땅에 헤딩’ 등 다양한 속담과 신조어를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해 본다. 목자의 이란격석. 이란투석에서는 목자의 굳은 결심을 ‘바위’에 빗대고, 목자를 가로막은 점쟁이의 시뒀한 시도를 ‘계란’에 빗대어 화자의 굳은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대의 이란격석은 ‘계란(약한 힘)’의 ‘어리석음’이나 ‘무모함’으로 의미의 전이가 일어난다. 이처럼 같은 표현이라도 시대적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렇게 새롭게 해석되는 의미를 함축적 의미, 관습적 의미, 화용론적 의미, 즉 성어의 ‘2차적 의미’라고 제시하고, 성어를 해석할 때에는 2차적 의미 파악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 다음 주치의 3차시에는 성어가 담화, 문화,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례로 「벽과 알」을 제시하고 학생들과 함께 읽고 토론했다.³¹⁾ 「벽과 알」은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2009년 예루살렘상을 수상하면서 발표한 연설문이다. 하루키는 이 연설에서 ‘혹시 여기에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거기에 부딪쳐서 깨지는 알이 있다면, 나는 늘 그 알의 편에 서겠다.’라고 말한다. ‘이란투석’을 모티프로 사용하면서 하면서도, 기존에 이 성어를 계란(약한 자)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으로 해석해 온 관습적 의미를 역전한다. 이처럼 고전이 시대와 상황,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새롭게 의미화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배우고, 이를 자신에게 적용하여 직접 고사성어를 새롭게 해석해보고, 패러디해보기도 한다. 다음은 학생들이 기말에 직접 수행한 과제이다.

31) 무라카미 하루키, 이영미 역, 「벽과 알」, 『잡문집』, 비채, 2011, 88~91쪽.



<그림 4> 한자성어를 이용한 학생 과제 사례

실천적 문해력 학습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한 한자 문해력과 한국어 문해력을 이론적으로 종합한다(13, 14주). 한자와 한문이 현대 한국어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한국어 문해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한국어로서의 한자 문해력의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1차시에는 먼저 한자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은, 구어 중심의 담화의 예시로 가) SNS의 쇼츠 영상과 스크립트를³²⁾ 제시한다. 다음으로 한자어가 7,80% 이상 사용된 문어 중심의 담화의 예로 나)의 신문 기사를 제시했다. 매체에 따라서 사용되는 언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똑같이 한국어로 된 처음 보는 텍스트인데 왜 전자의 텍스트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후자는 그렇지 않은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는 글의 장르적 특징을 파악하고, 한자어의 이해가 한국어 담화의 독해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기 위한 활동이다.

32) @short_factory, 병원 가서 충격을 받은 윈터, <https://youtube.com/shorts/iCy2BaEzbF4?si=fsWrzIF8q-BI-6Vs>, 접속일자: 2024.11.17.

가) Q :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단어 같은 거 있어요? A : 최근에 윈터가 무릎인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이랬는데 아 무릎 쪽이 우리해요 이랬대요 Q : 우리? A : 우리하다 Q : 우리하다가 뭐지? A : 언니 어디 사람이세요? Q : 저는 인천. A : 응...근데 그게 아리다와 시큰시큰하다와 쭈신다의 사이 어딘가래요. Q : 아... 그 근데 그 사이 어딘가를 의사 선생님은 찾으신 거예요? A : 못 찾으셨죠 그래서 윈터가 충격을 받고 저한테 와서 너 우리하다는 말 몰라? 이래서 we? Together? 뭐? 이랬는데 우리하디를 서울 사람은 모르냐고 사투리냐고 막

나) 1995년 스테브레니차 학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매년 7월 11일을 국제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 회원국들은 23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찬성 84표, 반대 19표, 기권 68표로 가결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찬성표는 애초 100표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적었다. 22개국은 총회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세르비아인을 학살의 주범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르비아를 비롯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 세르비아계 반자치스릅스카공화국(RS)은 이 결의안이 모든 세르비아인을 학살범으로 낙인찍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발칸 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 탓에 찬성국보다 많은 87개국이 기권 또는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³³⁾

2차시는 나)의 신문 기사 독해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먼저 기사를 전체적으로 스캔하여 한자어를 포함하여 모르는 단어가 얼마나 되는지를 훑어보고 기사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요약해 보되, ‘최대한 한자어를 사용하지 말’고 요약하라는 조건을 덧붙인다. 한자어 사용의 빈도는 담화의 내용보다는 담화 장르에 관련되며, 어떤 장르의 담화는 고유어로 번역이

33) ‘스테브레니차 학살’ 국제 추모일 유엔서 채택, 연합뉴스, 접속일자: 2024.11.17.

거의 불가능하다. 담화 나)의 역시 앞서 살펴본 가)와 마찬가지로 한자문화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현대의 유럽 남동부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에 대한 UN 총회의 의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 기사와 SNS 영상이라는 담화 장르의 차이가 한자어와 고유어 사용의 빈도와 비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만일 나)의 내용을 소설이나, SNS로 전달한다면 한자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나)처럼 한자어가 많이 사용된 담화에서는 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어가 한자어인데, 그렇다면 모르는 한자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찾아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요약하기는 한자어 핵심어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절차이자, 읽기 전략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나)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유엔 총회’에서(누가) ‘매년 7월 11일을 국제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무엇을)이 ‘가결되었다’(어떻게)고 요약할 때, ‘찬성’, ‘반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가결’과 ‘부결’은 기사의 핵심을 요약하는 데 필수적인 단어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런 장르의 글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사 용어이기도 하며, ‘可’, ‘否’의 반의 관계, 가부(可否), 왈가왈부(曰可曰否) 등의 연관어로 확장할 수 있는 어휘 학습과 연계할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교수자는 기사에 나온 정보만으로 알 수 있는 사실, 기사에 나온 정보를 토대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 기사 외의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실을 구별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³⁴⁾ ‘찬성표가 애초의 예상보다 적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87개국은 왜 결의한 채택에 대하여 기권 또는 반대했나?’, 반대하거나 기권한 국가가 찬성한 국가보다 많은데, ‘왜’

34) 문제. ‘위 기사를 읽고 알 수 있는 사실은? 1) 1995년 스테브레니차에서 보스니아인들이 세르비아인을 학살했다. 2) 국제 추모의 날 지정에 찬성하는 회원국이 반대하는 국가보다 많다. 3) 유엔 총회 의결에서 회의 불참은 곧 기권을 의미한다. 4)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동일한 국가이다. 5) 스테브레니차는 발칸 반도에 있을 것이다.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는지 등의 추가 질문은 기사를 통해 추론하거나, 추가로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는 사실에 관련된다. ‘스레브레니차 학살’, ‘세르비아’ 등의 고유 명사가 지나는 외연적 의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의미, 정치적 의미까지 파악할 때, ‘스레브레니차 학살’에 대한 국제 추모의 날이 지정된 것이 어떤 시사적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있는 깊이 읽기, 비판적 읽기가 된다.³⁵⁾

고사성어 다시쓰기와 신문 기사 읽기 등의 읽기·쓰기 중심의 담화 교육을 통해서 짧은 담화 안에서도 언어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자에서부터, 단어, 문장, 담화,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어는 외연적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함축적 의미, 화용론적 의미를 지니며, 끊임없이 해석되고 변화한다. 이러한 수업의 내용은 국어교육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읽기 수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국 학생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언어 단위는 파편화된 글자나, 단

35) 이러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자료를 검색하고, 연관시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 학생들이 추가적인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 나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이다.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교수자가 다음과 같은 적절한 참고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함께 제시했다.

‘보스니아 내(內) 영향력 그대로 ... 출국(出國) 안하면 법정(法廷) 세울 길 없어 / 유럽전범재판소가 지난 11일 보스니아 세르비아계(系)의 지도자인 라도반카라지치와 라트코믈라디치에게 국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이래, 유럽 정치는 두 사람의 체포 여부로 집중돼 있다. 유럽인의 도덕성, 정치적 결집력, 이행 능력 등 신세계 질서의 모든 것이 여기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도 카라지치와 믈라디치가 헤이그 전범재판소에 자진출두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두 사람은 약속 파기에 이골이 나 있다. 이들은 유엔평화군과의 약속을 수차례 어기면서 유엔군이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못한 틈을 노렸다. 그들의 손에 의해 불과 1년 전 유엔이 정한 「안전지대」인 스레브레니차에서 약(約) 8천여 명의 회교도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사실은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카라지치 영장(令狀)은 “휴지조각”, 1996.07.15., 朝鮮日報>’

어가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결부된 담화이며, 때로는 담화 이상의 문화 텍스트이다. 따라서 한문교육 역시 담화와 문화를 매개로 언어와 문학 교육을 실천적 문해력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4. 단일문해력에서 다중 문해력으로

2000년대 이후로 한글과 한자라는 이중언어 체계를 한글 중심의 단일언어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는 누군가에게는 ‘문해력 저하’라는 개탄스러운 세태로 나타났고, 누군가에게는 다른 것을 다르게 읽는 새로운 미디어 세대의 출현으로 나타났다. 언어는 본래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종성과 다양성을 긍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매우 이상적인 언어 환경에 놓여 있다. 고유어와 한자어가 이루고 있는 경계는 한국어의 복잡한 역사성의 지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성(affordance)의 측면³⁶⁾에서 보면, 우리는 이 이상적인 도구를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면서, 가능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 현재 대학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한자 기초 문해력은 문맹 상태, 한국어 문해력은 실질 문해력의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해력의 분리 양상은 자칫 세대 간, 집단 간 문해력의 격차로까지 번질 수 있다.

따라서 한자나 한문이 한국어 문해력의 장애물이 아니라, 한국어의 언어 생활, 더 나아가 교육과 문화, 학문 분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급성에 반하여 대학에서 인문, 어문학 관련 교양 과목이 개설되지 않거나 줄어들고 있다. 특히 한문 교양수업에 배정되는 시간은 더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

36) 나오미 배런,(2023) 앞의 책, 47쪽.

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개인적으로 문해력 향상에 관심이 있고, 한문 공부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지만, 무엇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연한 상태이다. 문제는 용기를 내서 수강을 시작한 학생들이 기초 한자를 익히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수준이기에, 한자 기초 문해력이 한국어 문해력에 통합되는 경험까지 하기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 학기 안에 한자 기초 문해력을 개별적으로 향상해서 한국어 문해력으로 통합하고, 기존의 실질 문해력을 분석적, 비판적, 창의적 문해력으로서의 고급 문해력 향상으로 심화할 수 있게 하지는 목표는 한 학기 안에 성취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목표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목표는 조바심으로 이어지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강의식 수업과 이를 보완하는 과제 중심 수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매 학기 관찰한 결과 학습량이 많아질수록 학생들의 성취도는 크게 발전한다. 따라서 교수자 입장에서는 학습 목표를 낮추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성취도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학습량이 가중되면, 교과목에 대한 흥미, 학습 동기가 떨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실천적 문해력 격차 해소라는 교양 교육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교수자 개인으로서 학습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주어진 여건 안에서 양보다는 깊이, 학습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교수법과 교재를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교양수업이 학생들의 전체 학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 그리고 이것이 교실 밖으로 확산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교과목을 분리하여 한자 기초 문해력을 강화하는 공통기초 필수 과목과, 한자어 학습과 한국어 고급 문해력을 개발하는 교양 선택으로 나누는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 내 교양 교육의 위상, 그 안에서도 한문교육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실

성이 떨어지는 대안일 수 있다. 따라서 교과목을 개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성인 문해력 향상이라는 탈교과, 융합교과적 학습 목표에 맞추어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문교육을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교양 교육에 통합, 연계된 교육으로 개발해야 한다.

한 학기만으로는 ‘문해력은 곧 어휘력’이라거나, ‘많이 읽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깨트리기는 어렵다. 많이 읽기의 목적은 입력과 노출을 많이 하여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확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미 대학 교양수업의 수강생들은 언어 발달이 어느 정도 완료된 성인 학습자인 만큼, ‘입력 홍수’를 통해 어휘를 확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장기적으로는 학습 동기도 떨어트려 교실 밖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미 성인 학습자라는 사실은 오히려 희망이기도 하다. 이미 제1언어에 숙달했으며, 중등교육 과정을 통해 그밖에 훌륭한 인지적 역량을 다진, 준비된 학습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언어와 매체, 지식을 ‘양손잡이’처럼 활용하여 교양을 쌓아갈 수 있는 기반과 여유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문해력이 외국어로서의 한자와 한문 문해력을 견인하는 동시에, 한자와 한문 문해력을 통해 한국어 문해력을 고급 문해력, 비판적·실천적 문해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교수자도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중,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필요한 자수와 자종 선정에 대한 연구」, 『漢字漢文教育』 4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 2020, 133~150쪽.

김영옥, 「어문 정책에 따른 漢字教育 정책 변천 과정 연구」, 『동아한학연구』 18, 고려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2024, 139~168쪽.

김은경, 『창의적 공학설계』, 한빛아카데미, 2020, 1~372쪽.

김은미, 「한자 급수 시험의 현황과 문제점」, 『한문교육논집』 25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549~587쪽.

김종규·원만희, 「미래 대학 교양교육의 핵심 영역으로서 '다중 문해력(Multi-Literacy)」, 『동서철학연구』 제104호, 한국동서철학회, 2022, 307~330쪽.

나오미 배런, 전병근 역,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크로스, 2023, 1~486쪽.

노명완, 정혜승, 옥현진, 『창조적 지식기반사회와 국어과 교육: 교육과정 모형 탐구를 중심으로』, 박이정, 2003, 1~343쪽.

노명희, 「한자어 문법 단위와 한자어 교육」,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2006, 466~470쪽.

로버트 레인 그린, 김한영 역, 『모든 언어를 꽃피게 하라』, 모멘토, 2013, 1~496쪽.

류준경, 「한문과 및 국어과 교육과정 변천의 의미와 상호 소통 및 유대의 모색」, 『한문교육논집』 49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7, 61~96쪽.

무라카미 하루키, 이영미 역, 「벽과 알」, 『잡문집』, 비채, 2011, 1~501쪽.

文英喜·文準彗·朴智英, 「한자능력시험 선정 한자 고찰」, 『중국어문학지』 68권, 중국어문학회, 2019, 157~177쪽.

사쿠 야스시, 장원철·김홍규 역, 『고등학생이 감동한 논어』, 김영사, 2008, 1~344쪽.

송병렬, 「外國人을 위한 韓國語 教育에서 漢字 語彙 教育의 問題」, 『한문교육논집』 38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2, 21~49쪽.

송병렬, 「한국의 한문문화와 한문교육」, 『동방한문학』 33권, 동방한문학회, 55~78쪽.

송재소, 배기표, 김호기, 변유경, 안병후, 김충겸, 이미영, 『고등학교 한문』, 다락원, 2018, 1~204쪽.

_____ , 『중학교 한문』, 다락원, 2018, 1~216쪽.

송혁기, 「인문고전으로서의 한문교육에 대한 管見-대학 교양교육의 맥락에서」,

- 『한문교육연구』 48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17, 40~42쪽.
- 송호빈, 「영화를 활용한 대학 한자·한문 입문 강의의 일례: 한자(어)·한문(고전)의 존재양상과 의미 되묻기」, 『어문연구』 48-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0, 271~331쪽.
- 신동준, 『목자』, 학오재, 2015, 786~787쪽.
- 신상필, 「대학 교양으로서의 한문교육과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한국고전연구』 2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31~54쪽.
- 신운섭, 송상현, 「언어 인공지능의 상식추론과 평가 체계 현황」, 『인문사회과학연구』 23-3,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133~166쪽.
- 심호남, 「대학 교양한문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교양학연구』 제16집,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1, 7~32쪽.
- 유명인, 「한문 교육 진흥을 위한 독일의 라틴어와 한문 교육 사례 검토」, 『동방한문학』 33권, 동방한문학회, 77~102쪽.
- 이강욱, 「이중언어 현상과 고전문학의 듣기·말하기·쓰기·쓰기에 대한 연구」, 『어문학』 106호, 한국어문학회, 2009, 57~97쪽.
- 이상봉, 「2022년 대학 교양한문 강의 목표와 교재 구성에 대한 일고」, 『漢文古典研究』 第44輯, 한국한문고전학회, 2022, 89~114쪽.
- 이소의, 「과정중심 읽기와 연계한 대학생 글쓰기 교육의 효율적 방안」, 『인문학논총』 46,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1~28쪽.
- 이승용, 「대학 교양 한문의 운영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성균관대학교 기초한문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92권, 한민족어문학회, 2021, 153~154쪽.
- 이시내, 박인우, 「토픽모델링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K대학 교양교육 학습목표 분석」, 『교육문제연구』 35(2), 교육문제연구소, 2022, 1~26쪽.
- 이영희, 「효율적인 한자어 교육을 위한 등급별 한자어 목록의 한자 척도 연구」, 『어문연구』 38-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471~495쪽.
- 이유리, 최소영, 「초등학교 고학년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문장 맥락을 활용한 한자 합성어 이해 특성」, 『특수교육논총』 38-4,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22, 99~115쪽.
- 전광진, 「초기한자에 보이는 그림문자의 특성과 그 변용」, 『중어중문학』 56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13, 525~567쪽.
- 정하정,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교육과 기본이수과목의 운영 방향-한문학사에 관하여」, 『한문교육논집』 61, 한국한문교육학회, 2023,

111~135쪽.

- 조병영, 「뉴리터러시와 전환적 의미 디자인 - 융복합 문식 환경 속 국어교육의 실천 방향 탐색」, 『국어교육』 171, 한국어교육학회, 2020, 31~70쪽.
- 최윤정, 「『논어』·『맹자』를 활용한 대학 인문고전 교양교육 사례 연구」, 『동양문화연구』 22권,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4, 197~231쪽.
- 한세해, 「대학 교양교육에서 한문 교과목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자한문교육』 46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9, 169~172쪽.
- 한영균, 「현대 한국어의 한자·한자어의 빈도 및 분포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그 활용」, 『언어와 문화』 1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7, 167~194쪽.
- 홍진욱, 「대학 교양 한자(어) 교과목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한국학논집』 92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3, 249~281쪽.
- 힐러리 쟁크스, 장은영 외, 『리터러시와 권력』,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1~374쪽.

ABSTRACT

Bridging the Gap between Chinese Character Literacy and Korean Literacy

Yun, Yae-young

This paper explores the disparity between Chinese character literacy and comprehensive Korean literacy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liberal arts courses. It aims to propose educational solutions by redesigning Chinese character education to elevate students' literacy from a beginner to an intermediate level and integrating it into overall Korean literacy. This paper reflects on the course "Walking along Chinese Culture," offered at University A from 2020 to 2024, and introduces a new framework called "Chinese Characters as Part of Korean" to enhance students' literacy.

To address the issue of functional illiteracy in Chinese characters, this paper advocates for developing basic literacy by utilizing the concept of the Chinese character index component from the secondary education curriculum. This approach emphasizes learning the principles of synthesis and decomposition of Chinese characters, which can also apply to Korean vocabulary acquisition. By fostering active cognitive skills such as analysis, synthesis, and reasoning through vocabulary learning, this paper suggests practical exercises, including mind mapping, to bridge the gap between basic Chinese character literacy and Korean literacy. The transition from basic literacy to advanced critical literacy can be facilitated through engagement with Chinese character culture by designing courses focused on reading and rewriting cultural texts.

This study argues that the issue of "weak literacy" extends beyond basic and advanced categories, necessitating the active integration of multiliteracy and critical literacy in liberal arts education. In conclusion, the research recommends restructuring Chinese character education to

encompass multiliteracy skills alongside reading and writing courses, promoting a holistic approach to literacy that includes a wider array of skills and competencies.

Key Words Chinese Character, Liberal Arts Education, Illiteracy, Multiliteracies, Critical Literacy, Mind Map

논문투고일: 2024.10.15.

심사완료일: 2024.11.06.

게재확정일: 2024.11.17.